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1. 9. 19 제98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부록: 2011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서울경제 불확실성 증대

서울의 경기를 반영하는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7월 전년동기대비 -17.5%를 기록하고 있어 제조업 부문의 생산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백화점 판매액 증가로 2.5%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고용여건은 취업자수와 청년 취업자수가 각각 1.5%, 2.8% 증가하는 등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산업생산지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6개월 연속 지속되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고용 지표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서울경제의 현재 경기상태는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럽재정 문제, 미국의 더블딕 우려 등 대외여건 악화와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문제제기 등 불안정한 대내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반기 서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 하락으로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3/4분기에 91.1로 2010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여 현재 체감경기 부진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경기판단지수」 또한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50.4로 조사되었고,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87.1을 기록하여 현재의 경기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4.9p 상승한 155.4,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0.8p 하락한 86.4로 서울의 경제여건에 뚜렷한 개선이 없는 가운데 고용시장과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기업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는 91.1로 체감경기 개선이 주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98.2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5.4p 하락한 87.9를 기록하여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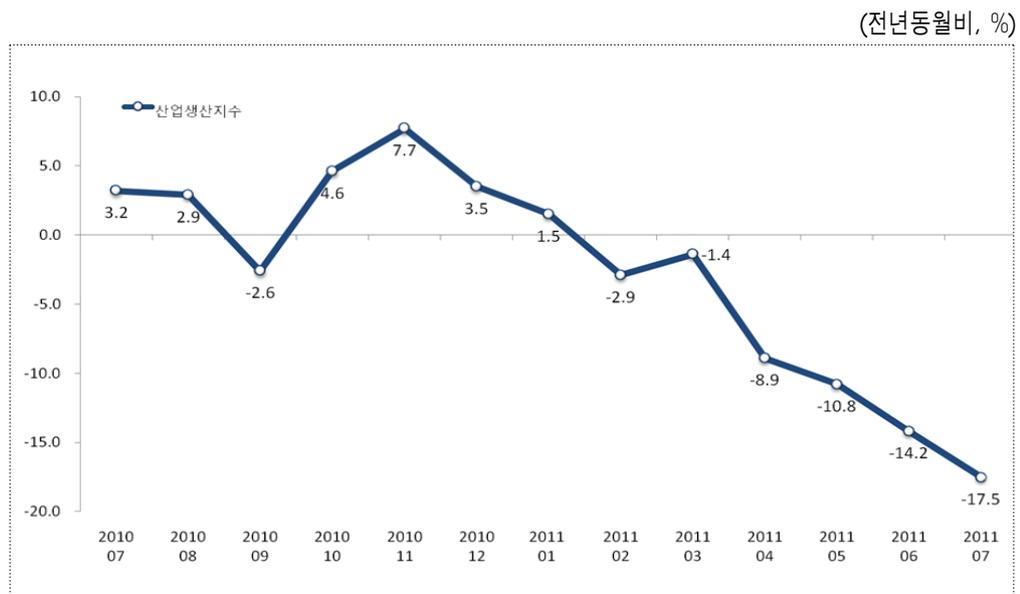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생활물가관리와 서비스, 중소기업 부문 지원에 정책 우선순위

서울의 고용여건은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생활물가의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생활물가 안정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서울경제의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해 산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의 전환 등 미래 잠재성장률 확보를 위한 정책 역시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2011년 3/4분기 서울경제, 생산은 하락 내수는 소폭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하락폭 확대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17.5% 하락하여 최근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회복국면을 보이던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0년 11월 7.7%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 유지
 - 서울의 산업생산 부진은 상반기 견고한 흐름을 보이던 자본재 생산이 전년동월 대비 29.9% 감소하고, 중간재와 소비재 생산 역시 각각 19.8%, 13.4% 감소하여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에 기인
 - 2011년 7월 전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3.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제조업 부문의 생산부진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자료: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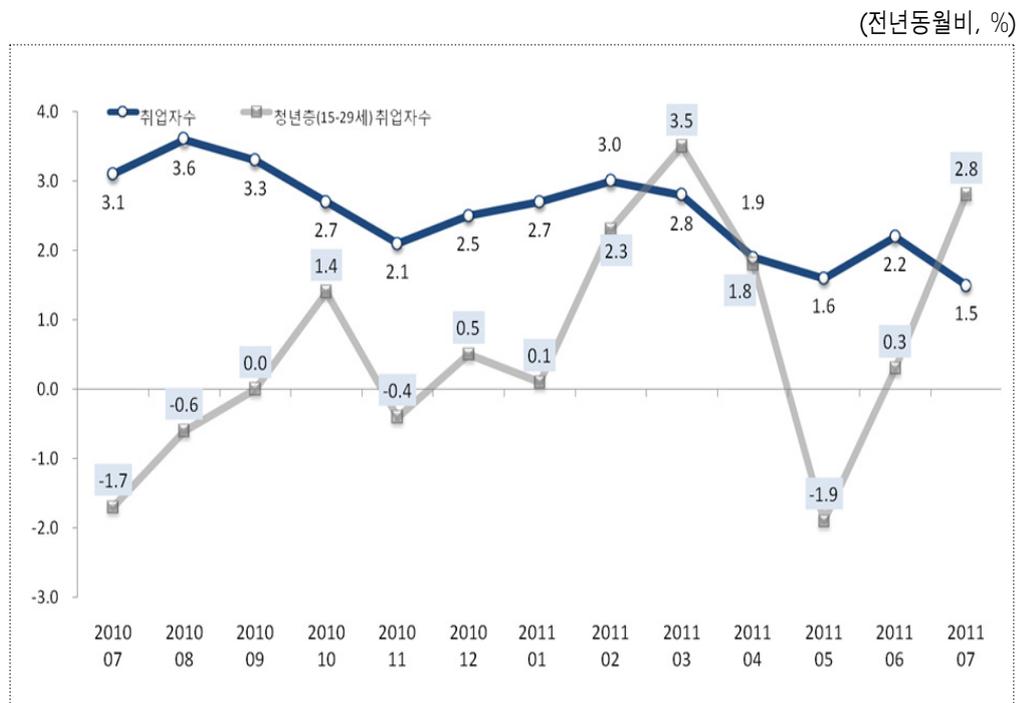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1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조정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2.5%로 플러스 성장률 유지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보합으로 백화점 위주로 내수 증가
 - 2011년 7월 장마 및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판매액을 비롯한 소매 판매액 증가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지난 1년간 평균 6.1%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서울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없는 한 민간소비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서울의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 여건은 개선
 - 2011년 7월 서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며 안정세 유지
 - 하지만 2010년 7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평균 2.5%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던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1년 4월 이후 점차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
 - 2011년 7월 서울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전국의 청년층 취업자수 전년동월비가 1.1%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전국에 비해 서울의 청년 고용여건은 양호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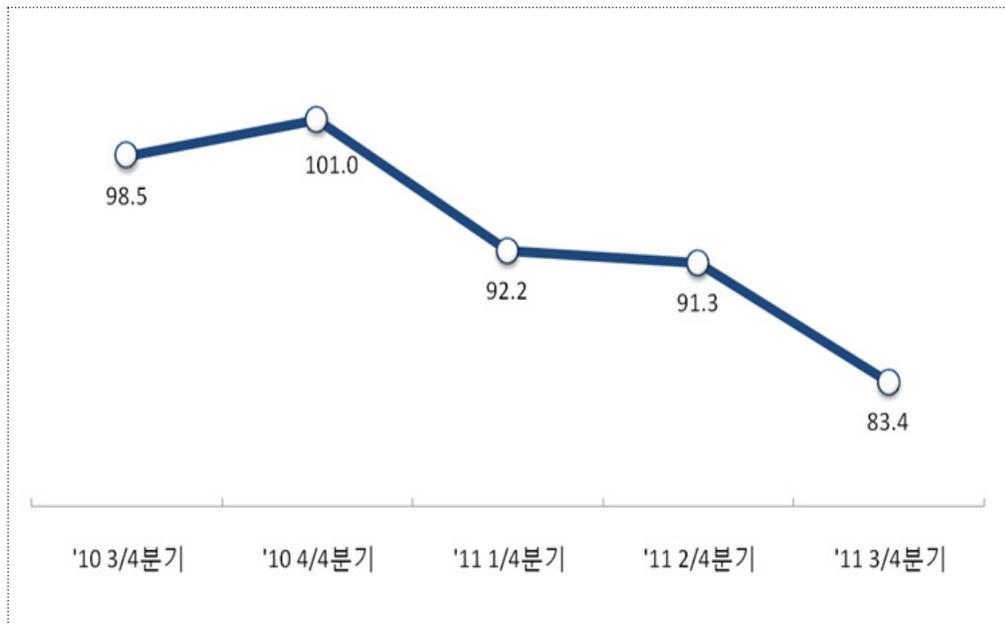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 악화,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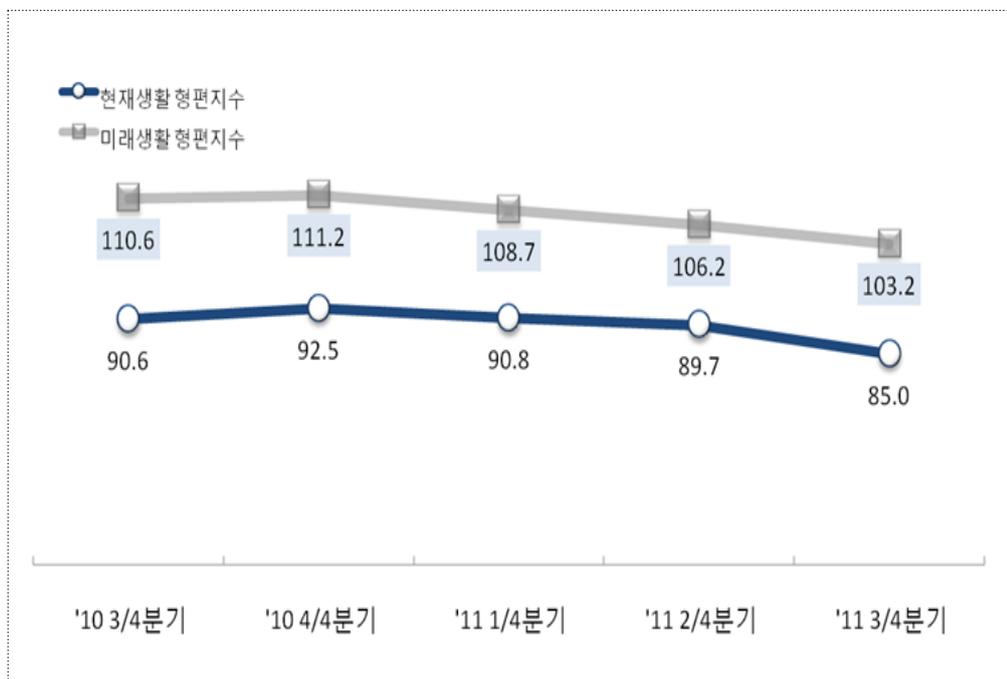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4/4분기 101.0을 정점으로 3분기 연속 하락
 - 서울의 2011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7.9p 하락한 83.4를 기록
-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 불안정 요인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및 경기침체 불안감 확대로 체감경기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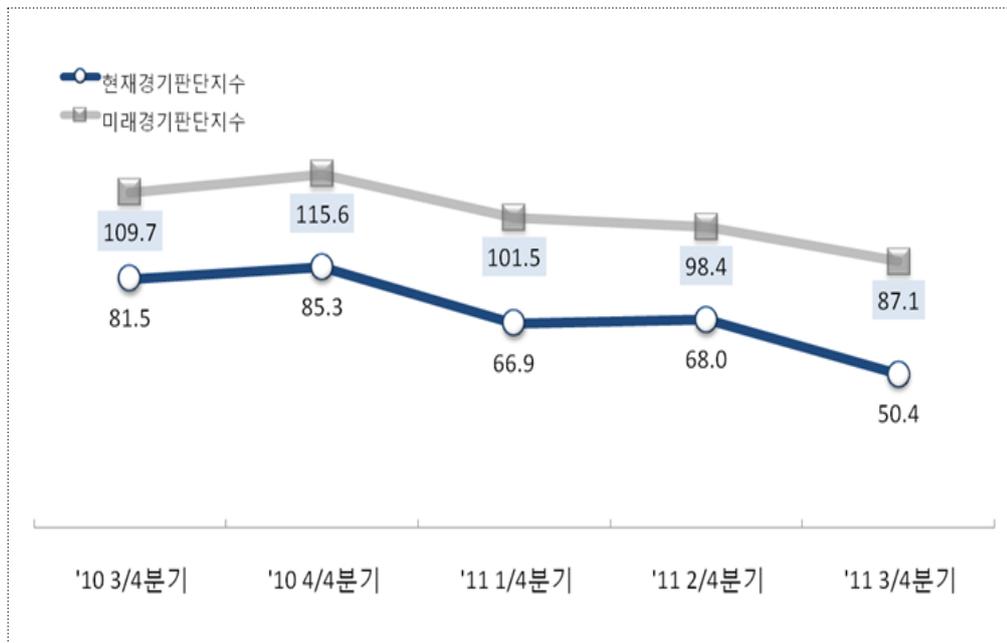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100)를 하회하였으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기준치(100) 상회
- 2011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4.7p 하락한 85.0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3.0p 하락한 103.2를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4/4분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4/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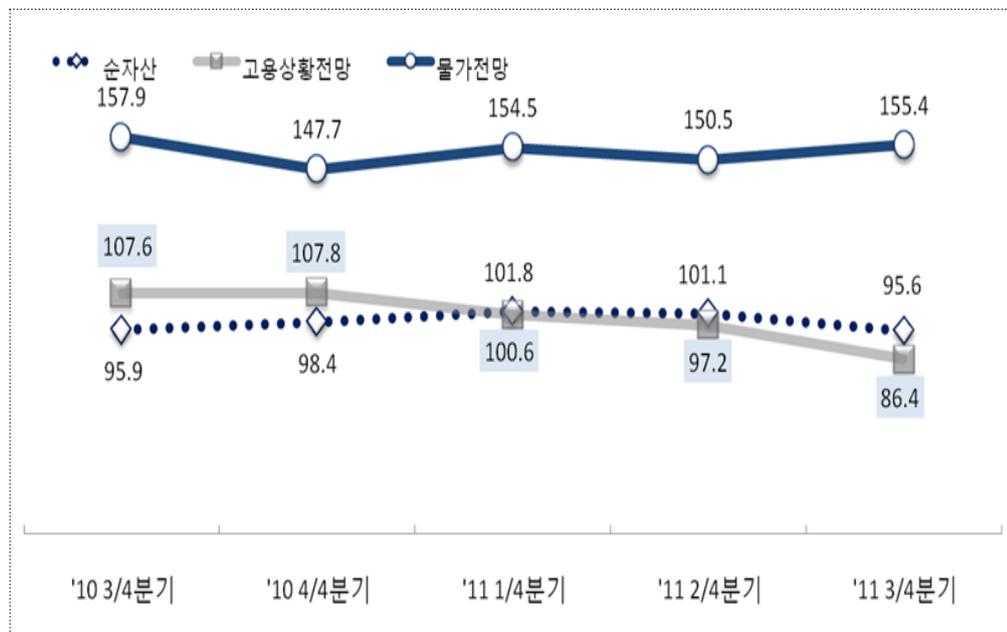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하여 현재 및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정적
 - 2011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50.4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17.6p 하락하여 서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음을 시사
 -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11.3p 하락한 87.1로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0년 1/4분기 이후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2011년 1/4분기 이후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하락폭 확대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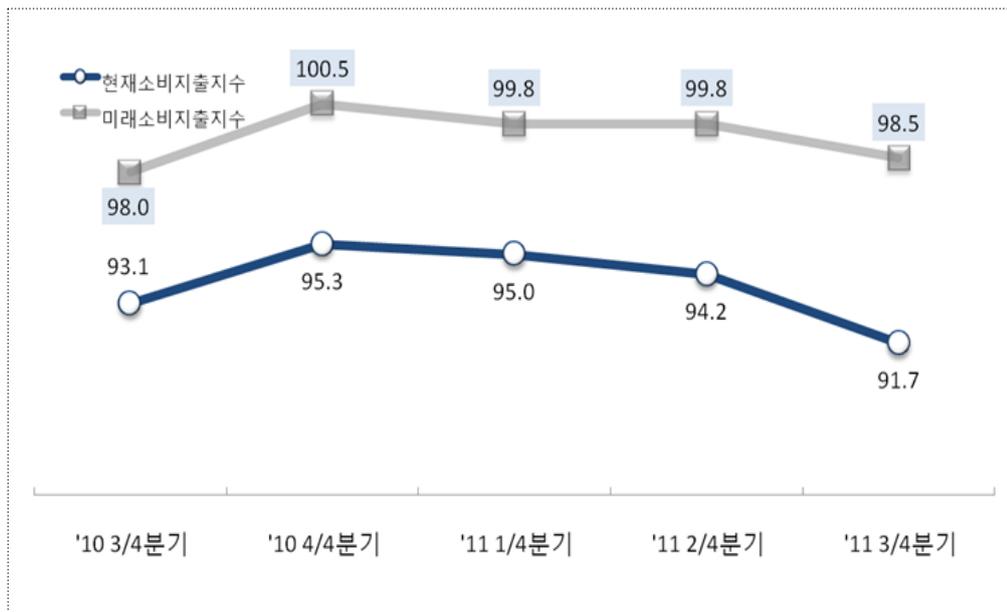
- 서울의 경제여건 변화에 큰 개선이 없는 가운데 고용시장과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확산
 - 2011년 3/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대비 4.9p 상승한 155.4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 반영
 - 2011년 2/4분기에 다소 안정되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 확대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1년 2/4분기대비 10.8p 감소한 86.4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 주춤
 -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 동향에 비해 향후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5.6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으나 가계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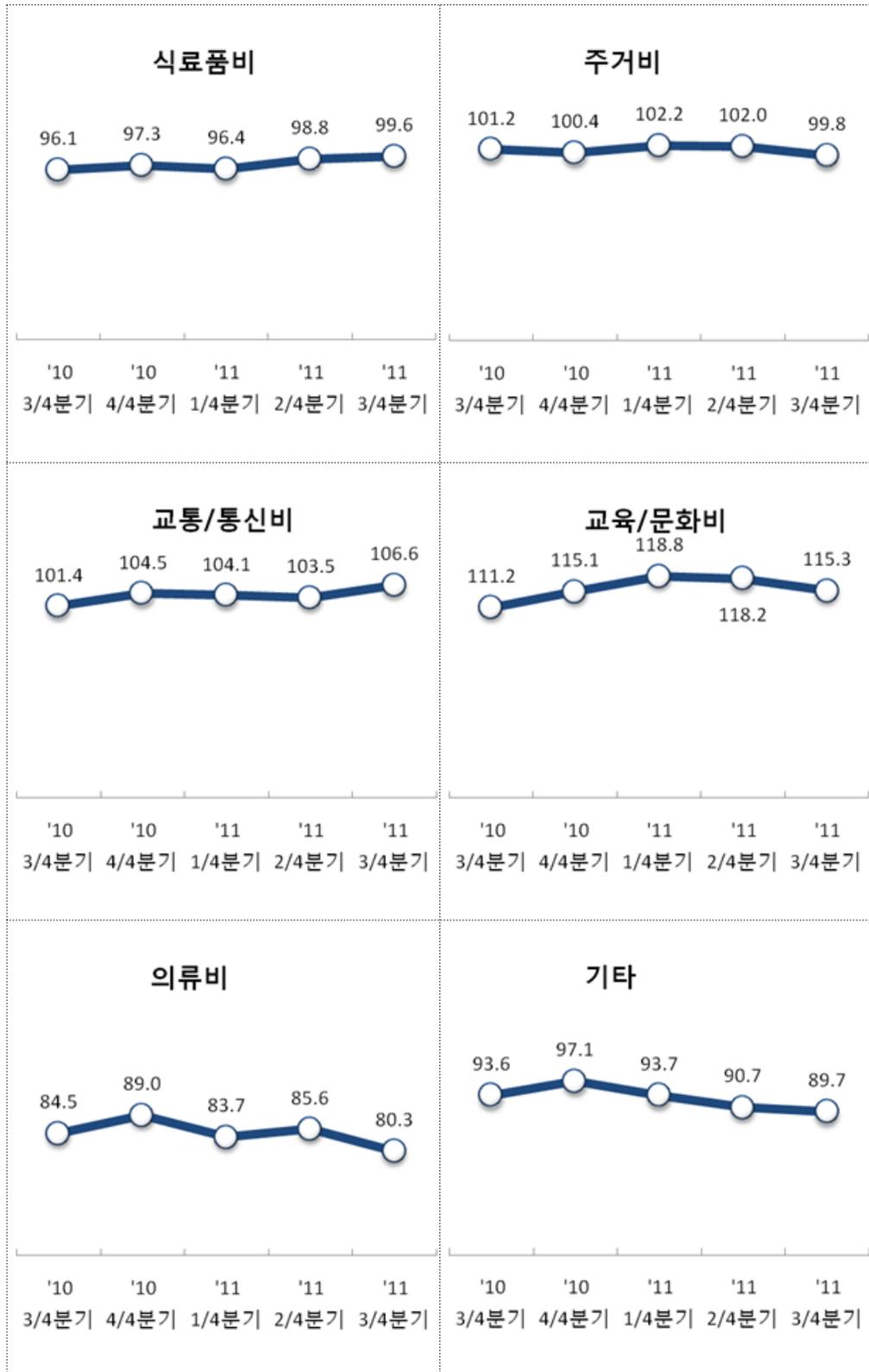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전망지수

체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현재 소비지출 주춤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11년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 2010년 4/4분기까지 개선되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2011년 2/4분기 이후 점차 조정되는 국면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2.5p 하락한 91.7을 기록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10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치(100) 주변에서 보합상태에 있어 향후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15.3), ‘교통/통신비’(106.6), ‘식료품비’(99.6) 순으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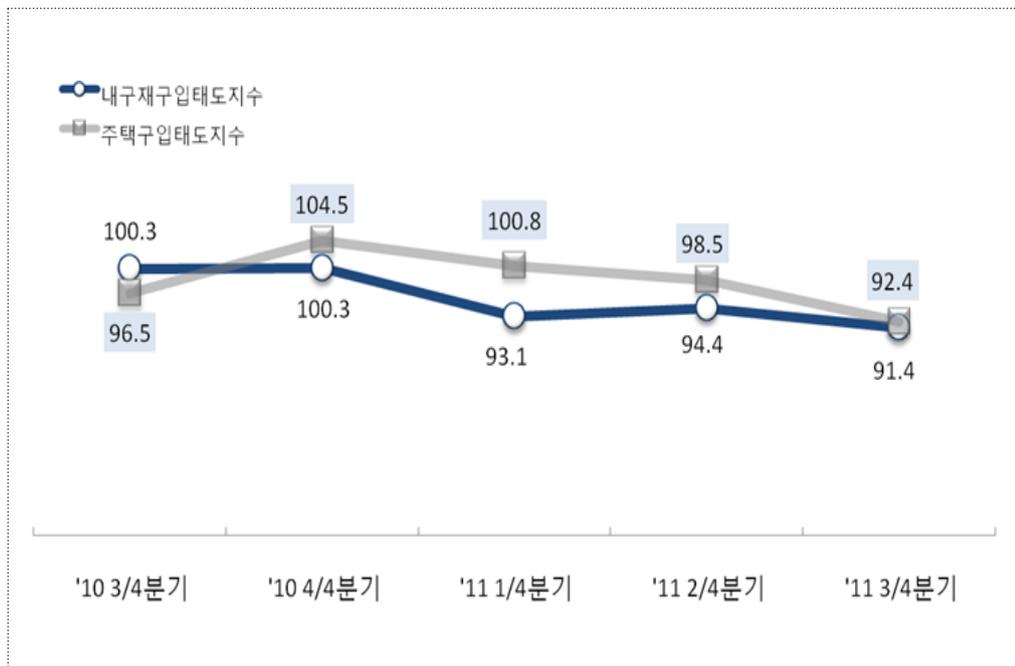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그림 9]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 전망지수

- 2011년 3/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
 - 2011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91.4로 전분기대비 3.0p 하락
 -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음을 반증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6.1p 하락한 92.4로 2010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며 기준치(100) 하회
 - 「주택구입태도지수」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 역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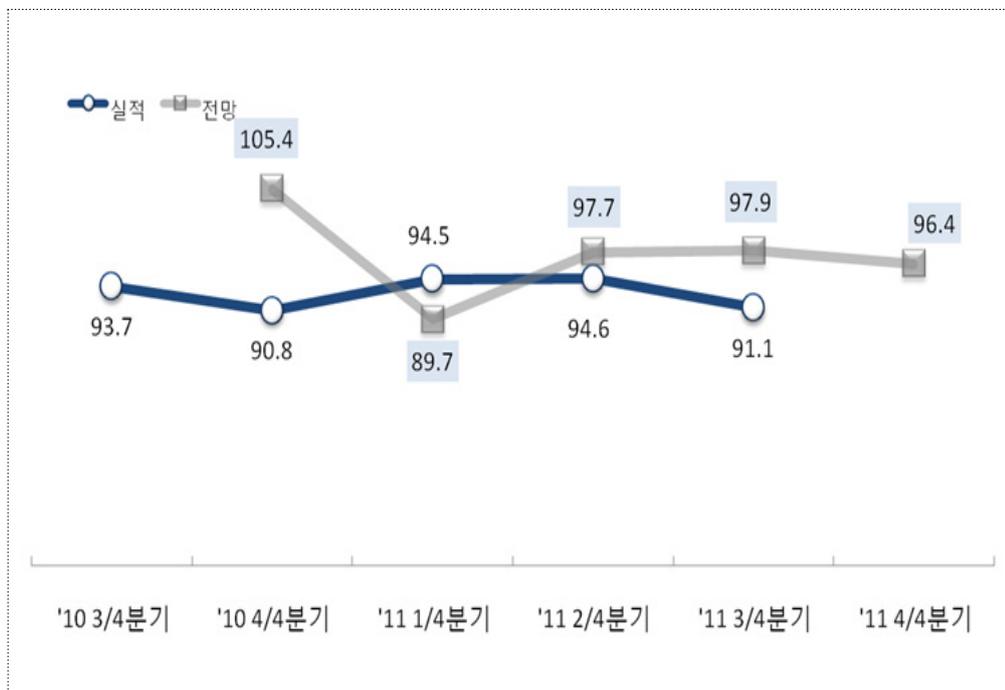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Ⅲ.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둔화 및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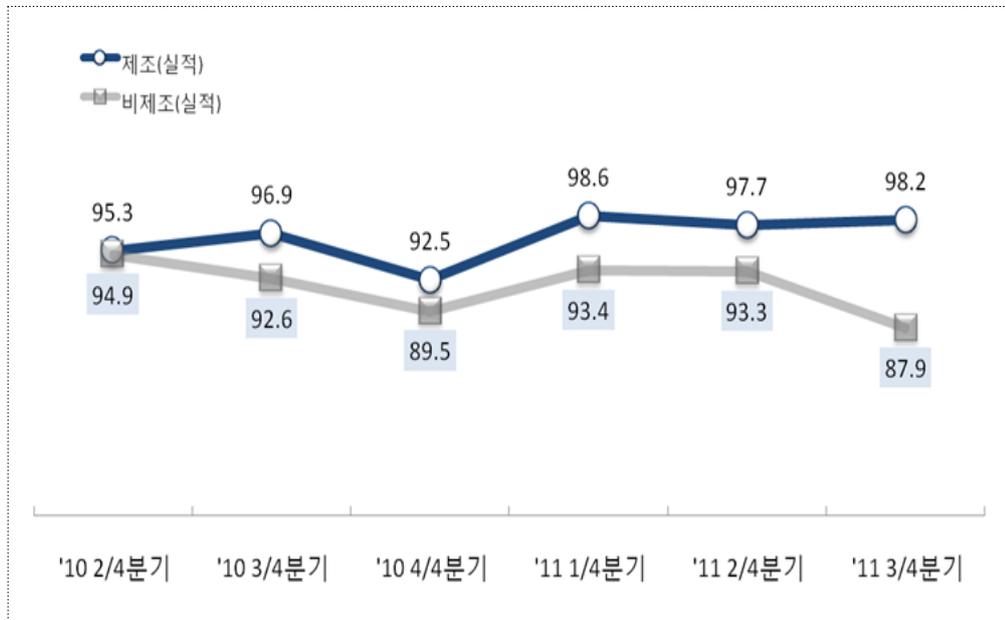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는 하락세로 반전
 - 서울의 「업황실적지수」는 2011년 3/4분기 91.1로 전분기보다 3.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
 - 2011년 4/4분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서울의 「업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 대비 1.5p 하락한 96.4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하락하여 기업의 체감경기과 경기전망이 모두 낙관적이지 못함을 시사



[그림 11]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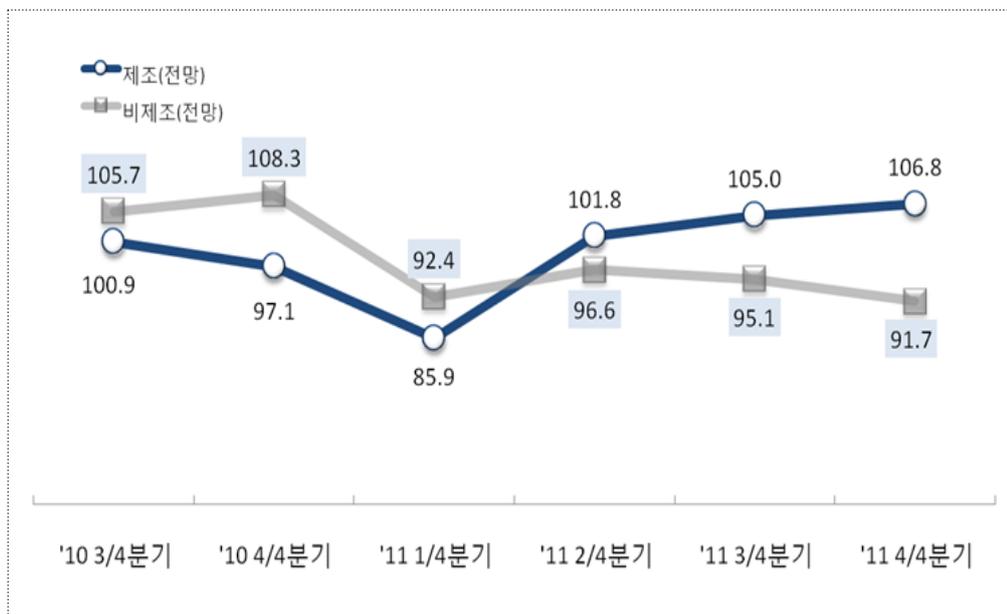
제조업 체감경기 유지, 비제조업 체감경기지수 하락

- 2011년 3/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3분기 연속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부진
 - 서울의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0.5p 상승한 98.2를 기록하였으나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5.4p 하락한 87.9를 기록
 - 2011년 7월 제조업 생산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아직 양호한 것으로 조사
 -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서울기준)의 양호한 흐름과 서비스업 생산지수(전국기준)의 안정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



[그림 12]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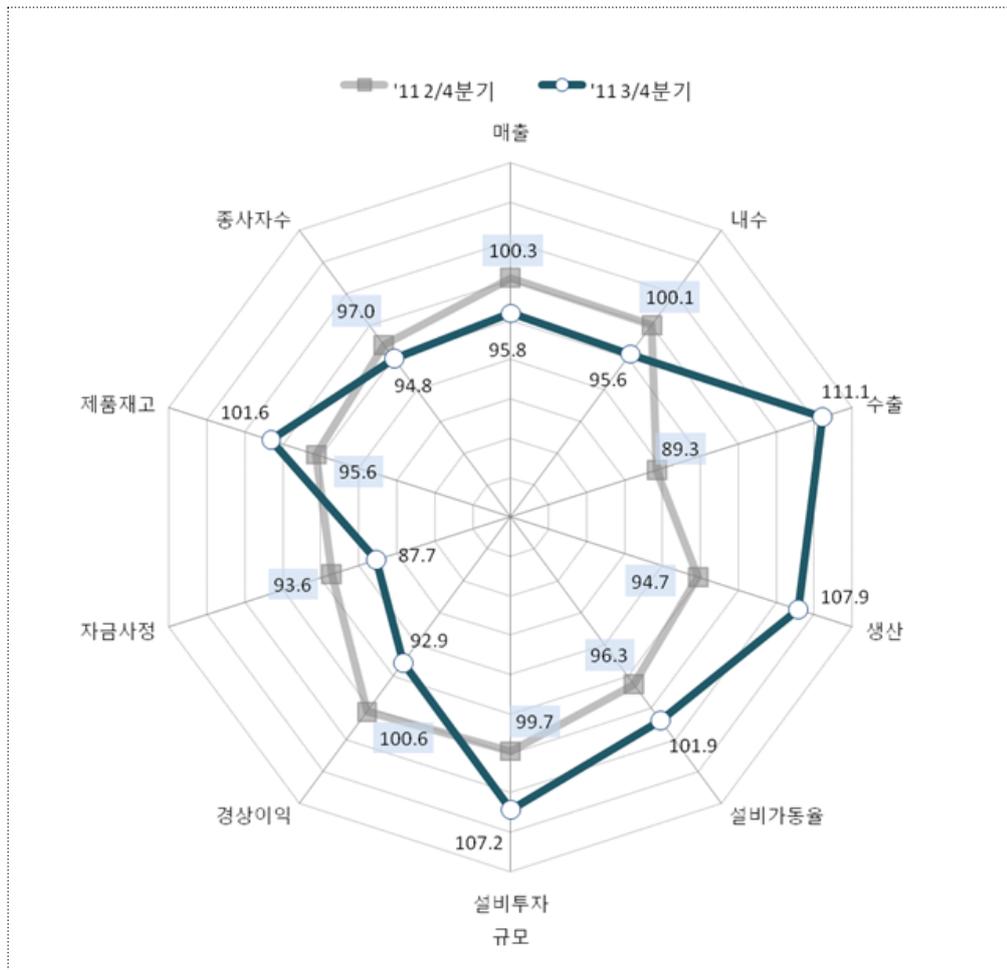
-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은 전분기대비 1.8p 상승한 106.8을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3.4p 하락한 91.7을 기록
 -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2011년 1/4분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세 유지
 - 제조업 「업황전망지수」가 2011년 2/4분기 이후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제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2011년 1/4분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
 - 서울의 가시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그림 13] 서울의 산업별 업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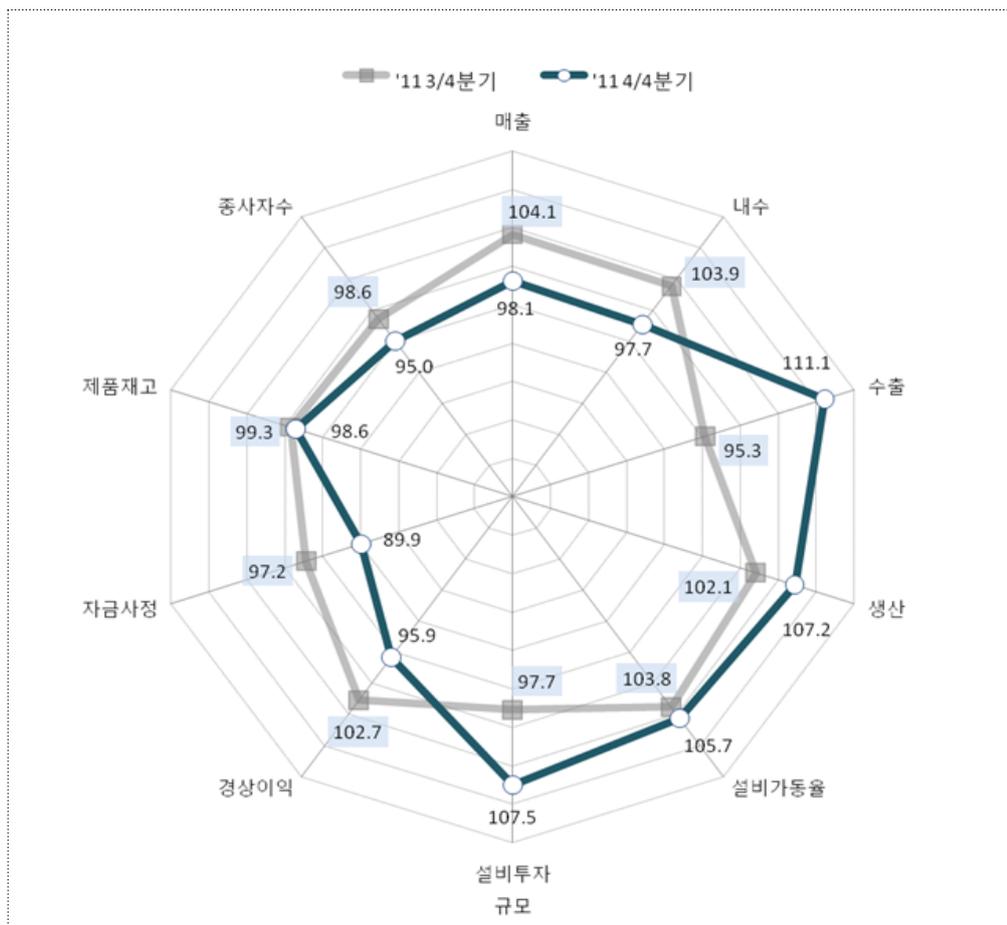
서울소재 기업 실적은 내수·매출 부진, 수출 개선 등 혼조세

- 2011년 3/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수출은 증가, 내수는 감소, 채산성은 악화
 - 「수출실적지수」와 「생산실적지수」는 각각 전분기대비 21.8p, 13.2p 상승한 111.1과 107.9를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
 - 「내수실적지수」, 「매출실적지수」, 「경상이익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4.5p, 4.5p, 7.7p 하락하여 내수부진과 함께 기업 채산성이 다소 악화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2011년 4/4분기 각 부문별 전망지수 역시 실적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혼조세
 - 「수출」(111.1), 「생산」(107.2), 「설비가동률」(105.7), 「설비투자」(107.5)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
 - 2011년 4/4분기도 내수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서울 소재 기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내수」(97.7), 「경상이익」(95.9) 전망지수는 4/4분기에 기준치(10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와 기업채산성 악화 예상



[그림 15]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대외여건 악화와 대내 불안정 요인으로 경기 하락 심리 확대

- 서울의 산업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증가, 고용 여건은 안정세 유지
 - 2011년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5% 하락하여 최근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백화점 판매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며 증가세 유지
 - 서울의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안정세를 유지하며, 청년 고용 여건 개선
 -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청년층 취업자수가 감소한 전국에 비해 고용여건 양호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가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전망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소비자태도지수」가 전분기대비 7.9p 하락한 83.4를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는 각각 50.4, 87.1로 전분기대비 17.6p, 11.3p 하락
 - 현재 서울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미래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울소재 기업의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하여 체감 경기 둔화 및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 반영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체감경기 및 경기전망은 안정세를 보이며 다소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체감경기 및 경기전망은 하락
 - 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0.5p, 1.8p 상승
 - 양호한 실적지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5.4p, 3.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제조업 경기활성화 대책 시급

고용 대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 정책 우선순위 필요

- 서울의 고용여건은 청년 취업 증가 등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 필요
 -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용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서울시가 청년층 취업대책으로 시행하는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와 잠재복지수요를 줄일 수 있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의 강화
-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 필요
 - 장마 및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

상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

-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의 관리·감독 강화와 홍보를 통해 물가 및 유통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과 같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측면의 물가 안정노력 필요

□ 서울경제의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해 산업 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활력 회복과 내수 확대 유도

-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과 동시에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
 - 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 육성 등 타 분야로의 업종 전환 및 유도 필요
 - 중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1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3/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0년 4/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1/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2/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2011년 3/4분기	83.4	85.0	103.2	50.4	87.1	91.4	92.4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3/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0년 4/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1/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2/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2011년 3/4분기	91.7	98.5	95.6	86.4	155.4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0년 3/4분기	2010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0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매출	96.8	90.6	98.6	100.3	95.8	106.5	90.3	102.0	104.1	98.1
내수	95.7	90.9	98.6	100.1	95.6	107.4	90.5	102.3	103.9	97.7
수출	105.4	93.6	97.5	89.3	111.1	101.3	102.1	103.2	95.3	111.1
생산	101.6	94.3	96.7	94.7	107.9	100.9	90.3	104.5	102.1	107.2
설비가동률	105.5	90.5	95.1	96.3	101.9	98.8	90.8	98.8	103.8	105.7
설비투자규모	102.8	93.7	93.1	99.7	107.2	98.7	85.9	93.4	97.7	107.5
경상이익	94.8	86.5	107.1	100.6	92.9	103.3	89.8	109.7	102.7	95.9
자금사정	94.6	86.2	101.2	93.6	87.7	103.9	93.0	104.5	97.2	89.9
제품재고	104.2	108.0	98.7	95.6	101.6	103.8	94.6	95.9	99.3	98.6
종사자수	89.4	91.5	93.0	97.0	94.8	91.4	88.4	96.1	98.6	95.0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1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11년 8월 중순).